

\* '힘없는 비정규직 청년'의 상징이 되어버린 구의역 스크린도어. 시민들은 추모의 문구와 꽃, 컵라면을 두고 간다. 위 ©연합뉴스 아래(즉석밥 사진) ©페이스북

#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는 지금 '구의역'에서 있다

박정규 시 〈겨울, 철산리 부근에서〉 〈노동 2〉

글 최규화 인터파크 도서 <북DB> 기자  
realdemo@hanmail.ne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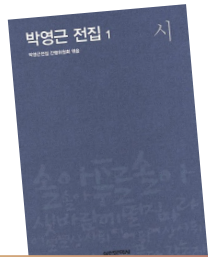
“컵라면 말고 따뜻한 밥 챙겨주세요. 5월 29일 생일 축하해요.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.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. 부디 그곳에서는 안락하길 바랍니다.”

편의점에서 파는 즉석밥이었다. 그 위에는 나무젓가락이 한 벌. 그리고 노란색 메모지가 붙었다. 이름 모를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한다. 편의점에 들러 미역국밥을 고르고, 돈을 지불하고, 젓가락을 챙기고, 지하철역 안을 두리번거리며 '구의역 승강장 9-4 스크린도어'까지 걸어왔을 그의 발길. 그리고 미안함과 노여움과 원통함을 애써 참고 삼키며, 한 글자 한 글자 지방문(紙榜文)을 쓰듯 메모지를 채워나갔을 그의 손길. 구의역 스크린도어에는 그런 마음들이 한 편 한 편의 시가 되어 눈물을 떨구고 있었다. 5월 28일 '구의역 승강장 9-4 스크린도어'에서 숨진 청년은 만 열아홉 김아무개군. 공고 재학 중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설관리 업체에 취직이 됐다고 했다. 그는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, 고장 난 이 사회의 폭주에 목숨을 잃었다. 그가 남긴 가방에서는 컵라면과 숟가락이 나왔다. 5월 29일은 마침 그의 스무 번째 생일.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 날숨을 뱃은 '구의역 승강장 9-4 스크린도어' 앞에 생일상을 차리고, 그가 차별 없는 곳에서 다시 태어나길 기도했다.





\* 박은태\_터널\_캔버스에 유채, 디지털 프린트\_170×124cm\_2009



## 겨울, 철산리 부근에서

박영근

탈의실, 깨어진 유리창으로 훑날려오는/ 눈송이들 속에서 흔들리는 건너 공장의 굴뚝을 바라보며/ 간식용 백 원짜리 삼립빵을/ 씹곤 하였다. 어디선가 지게차 멈추는 소리/ 비명 소리 가까운 역에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/ 까맣게 하루가 또 묻혀가고

식빵 쪼가리처럼 허기 속을 찌르는 쇳가루처럼/ 작업장 구석구석에 말라붙은 눈빛들/ 웅크리고 한곳으로 수그린 얼굴들 핸드카에 싣고/ 어떤 밀바닥까지 가고 싶었다./ 다리가 붓고 허리가 쭈실 때 가령/ 일당 삼천 원짜리 싸구려 유행가를 부르고 싶을 때

주저앉아버릴까. 열두 시간의 노동과/ 지쳐 떨고 있는 형광등 불빛/ 캄캄하게 굴러오는 2만 PS 합지들 위에/ 떨어져버릴까. 눈물방울 같은 것으로 남아/ 더러운 얼굴이 될까

얼어붙은 하늘에 김치 100원/ 계란 70원 맘수건 500원 혈벗은 숫자들을/ 돌맹이처럼 내던지면서/ 산언덕까지 단칸방 불빛들에 기대어/ 더듬는 맨살, 더 분명한 곳에서 쓰러져야 한다./ 눈물과콧물과목구멍에서 얼어붙는/ 가래덩이들이겨울의모든관계가되고/ 엉퀴썩는맛이될때까지/ 그렇다/... /눈송이마다/ 엉겨붙는 바람과 함께 숫구치며/ 맨바닥에 부딪쳐 으깨어지며 쏟아지면서

휘감는 기계 바퀴 아래/ 아우성처럼 피들처럼/ 곳곳하게 밀려가는 것들도 보았다.

5월 초에 출간된 박영근 시인의 전집을 선물 받아 그냥 책상 한쪽에 꽂아뒀다. '시'와 '산문'이 각 한 권씩, 양장본 각 권이 800쪽에 이르는 두꺼운 책이라 "나중에 읽어보지 뭐" 하고 좀 미뤄뒀다. 구의역 사고 소식을 듣고 또 며칠. 달이 바뀌고 6월이 돼서야 『박영근 전집 1 - 시』에 우연히 눈이 갔다. 민중가요 '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'의 노랫말이 된 시를 쓴 박영근 시인. 1981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다섯 권의 시집을 세상에 남기고 2006년 49세의 아까운 나이로 타계한 노동시인, '노동자 시인'이다.

책의 695쪽에서 찾은 시 〈겨울, 철산리 부근에서〉는 1984년 『민중시 1집』에 발표된 시이다. "흔들리는 건너 공장의 굴뚝을 바라보며/ 간식용 백 원짜리 삼립빵을/ 씹곤 하였다"라는 대목에서, 목구멍에 무엇이 탁 걸렸다. "식빵 쪼가리처럼 허기 속을 찌르는 쇳가루처럼/ 작업장 구석구석에 말라붙은 눈빛들"이라는 대목에서, '구의역 승강장 9-4 스크린도어'에 쏟아진 설음이 내게서도 왈칵 쏟아져 나왔다. 30년 전의 "백 원짜리 삼립빵"은 지금 천 원짜리 컵라면으로 바뀌었다. 그리고 "어디선가 지게차 멈추는 소리/ 비명 소리 가까운 역에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"에 "까맣게 하루가 또 묻혀가고" 마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.



# 勞動

## 노동 2

박영근

아니다 탄식이 아니다/ 쇧가루 쌓여가는 폐질의 몸을  
 끌고 가며/ 기다리는 죽음이 아니다/ 노동이란 돈에  
 팔려/ 밥덩이에 팔려 쇧붙이가 되어/ 노여움의 가슴을  
 파묻고/ 아아 죽음으로 잊어버리고/ 기계가 되어 돌아  
 가는 것이 아니다

고향집/ 무너진 돌담을 기어오르는/ 시퍼런 호박넝쿨  
 을 따라/ 어린 시절 누더기 가슴을 헤치고

안전등도 없는 절단기 아래/ 손가락을 바치던 시절을/  
 일으켜 깨우고/ 오를수록 피 흐르는/ 노동의 캄캄한  
 골짜기/ 희망의 푸른 삼으로 찍어 오르며/ 쓰러진 친  
 구들의 아우성 퍼올려/ 나아가면서/ 출렁이는 뜨거운  
 눈물로/ 그리움으로 상처투성이 온몸을 서로 씻어주  
 는/ 공동체가 되어/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

노동이란/ 굶주림의 추억으로부터 사슬의 두려움으로  
 부터 일어나/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다/ 사람의 땅에  
 서는 것이다

‘구의역 승강장 9-4 스크린도어’에 모인 사람들은 ‘너의 잘못이 아니야’라고 말했다. ‘미안하다’라고도 말했고, ‘잊지 않을게’라고도 말했다.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 덕분에,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군의 동료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발표가 나왔다. 하지만 우리는 안다. 시간 앞에 우리는 또 잊어갈 것이라는 사실을. 나중에 또 어느 인생이 처참하게 지는 날, 우리는 또 말하겠지. “세월이 이만큼 흘렀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”라고. 30년 전 삼립빵이 지금 컵라면이 됐듯이, 그때는 또 즉석밥이나 생수통이나 박카스병 같은 것으로 바뀔지는 몰라도.

『박영근 전집 1-시』의 232쪽에서 찾은 시 〈노동 2〉. 원래는 1987년 시집 『대열』에 실린 시다. “아니다”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며 단언하는 시인. 나의 못난 “탄식”을 야단친다. 나의 회의(懷疑)가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극복해야 할 것일 뿐. 그냥 인정하고 무감(無感)해지고 결국 방조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.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다면 그 전에 세상을 바꾸고, 이 죽음을 씻고, 또 다른 인생들을 구해내면 되는 것이다.

그래 맞아. “오를수록 피 흐르는/ 노동의 캄캄한 골짜기”를 오르는 우리의 현실은 별반 바뀌지 않았다. 하지만 분명히 바뀌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다. “쓰러진 친구들의 아우성 퍼올려/ 나아가”고, “출렁이는 뜨거운 눈물로/ 그리움으로 상처투성이 온몸을 서로 씻어주”면서 올라가면,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 “사람의 일을 하는” “사람의 땅에” 설 수 있다는 것이다.

‘구의역 승강장 9-4 스크린도어’.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지금 그곳에 서 있다. “밥덩이에 팔려 쇧붙이가 되어” “기계가 되어 돌아”갈 것인가. 아니면 “희망의 푸른 삼으로 찍어 오르며” “거듭 태어”날 것인가. 서로 등을 지고 달리는 전철이 우리 앞에서 엇갈린다. **민중당**